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 지나지만 그 충격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그 짧은 찰나에 수십 톤이나 되는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지면서 아홉 명이 목숨을 잃고 여덟 명은 중상을 입었다. 그 아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대형 버스가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지금도 모골이 서늘해진다. 사고가 발생한 그 길을 매일 시내버스로 오갔던 터라 더욱 놀란 가슴을 쓸 어내린다.

어이없고 허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승객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리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대면 수업일이라 등교할 필요가 없었지만 동아리 후배들을 챙기느라 일부러 학교에 들렀다가 귀갓길에 참변을 당한 고교생.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퇴원을 하루 앞두고 아버지와 함께 병문안을 갔던 효심 깊은 30대 취업 준비생. 고령에도 거동이 불편한 또래 독거노인들의 말벗을 해 준 뒤 귀가하던 70대 할머니.

시민 불안해도 업체·지자체는 태연

하나같이 가슴 아린 사연들이다. 사고 이후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들과 일면식도 없지만 이미 시민 수천 명이 생때 같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회색빛 잔해 데미가 가득 쌓인 사고 현장 건너편 인도에는 어느 시민이 명복을 빌며 안개꽃 한 다발을 놓아두었다. 거기 함께 놓인 손 편지가 또 가슴을 울린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 살아 있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을 지키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들 입을 모은다.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초임 교사의 4월은 늘 고행의 달이었다. 담임의 역할 중 가장 힘든 것이 가정방문이 아닌가 싶다. 도회지에 서야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가 알아서 챙길 수 있다. 시쳇말로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농촌은 다르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부모의 낮은 학력 수준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기 쉬운 시골일수록 가정방문은 꼭 필요한 담임의 업무 중 하나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읍 단위 고등학교에 첫 별령을 받은 후 시작한 가정방문이었다. 학교가 안정되는 3월 중순부터 우리 반 가정방문이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신들린 사람처럼 토요일, 일요일에도 매일 학생을 찾아 나섰다. 그래야만 4월이 끝날 무렵이면 60여 명의 가정방문을 마칠 수 있어서였다. 특히 농촌의 4월은 농번기의 시작이다. 학부모가 일어나고 빈집이 더 많아서 우선 학생의 공부방부터 살피는 게 순서다. 일요일 시골길에 식당은커녕 가게도 없

기 고



고은주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업을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으로 여겨 왔고 풍년기원제 같은 다양한 의례를 통하여 한 해 농사의 풍년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농업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그동안 시장 개방화,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 등으로 농업의 성장과 농가의 소득은 침체를 거듭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재해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도 크게 북상하고 있으며 병충해 발생도 증가하여 농업 및 농촌 지역이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위험 사회’의 공범들

게다가 철거 현장을 지나던 주민들은 사고 이전에 벌써 그 위험성을 느끼고 잇따라 경고음까지 났다고 한다. 한 시민은 사고 두 달 전 국민신문고와 광주 동구에 “철거 현장 바로 옆은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다. 천막과 파이프로 차단하는 것이 인명 사고 등(을 막을 수 있는 지?) 불안해서 알린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이 지적한 건물은 사고 건물과 같은 구역의 또 다른 건물이었다. 이에 대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동구는 “조합 및 해체 시공자에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 조치 명령을 내렸다”라고 답했을 뿐이다.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한 대책 수립 등의 조치는 아예 없었다.

철거 건물 바로 앞의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정류장 시설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두 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고가 지난 4월 계림동에서 일어났지만, 광주시 등 지자체는 이렇다 할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고 당일에도 붕괴의 전조가 있었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

평범한 시민들도 감지할 수 있었던 위험을 지자체나 업체들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고 한다. 그러한 ‘하인리히 법칙’은 이번 참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된 인재(人災)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된 셈이다.

그것은 경찰 수사로도 확인되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사 관련 업체들의 불·탈법 행위와 부실 철거의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법법에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기본상식이다. 그런데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 공사를 하청받은 (주)한솔기업은 사실상 1인 회사나 다름없는 (주)백솔건설에 재하도급하는 등 불법 단단계 하청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공사 금액의 일부만 챙기고 남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최종 하도급 업체에 수급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하며 졸속·날림 공사를 일

가정방문과 통닭

어서 점심을 놓치고 거르기 일쑤였다. 70년대는 자동차 흔치 않던 시절이었다. 일요일 종일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4월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한눈에 쏙 들어왔다. 신출내기 교사 시절 남자 고교에 근무할 때였다. 토요일 오후 학생과 함께 가정방문 가던 길에 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정방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이들이 지난 월요일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의 집을 다시 찾아 나서게 되었다. 학생과 함께 엉덩방아를 찢어 가며 달궂거리는 시골 버스에서 내려 두 시간 남짓 비탈진 산길을 올랐다. 그리고 보니 등성등성 대어섯 채의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양철 깎을 썩은 싸릿대로 만든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멍이 숭숭 뚫린 조가마루에 오후 햇살이 가득하였다. 나이 지긋한 어머니는 텃밭에서 일하다 말고 막내아들의 답임을 보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학부모의 속사정을 한참 지나서야 알 수 있었다. 토요일 교사의 가정방문 이야기는 들었으나 설마 했었다고 한다. 중·고 교사가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오지마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은 남다르다는 막내의 성화에 못 이겨 답 한 마리를 잡아 두었다고 한다. 토요일 오후까지도 기다리던 가정방문이 없자 그 삶은 닭을 우물 속 두레박 깊숙이 매달아 두었던단다. 이는 냉장고가 귀한 시절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보관 방법 중 하나였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한낮이 되자 닭이

슬기로운 농부 생활, 스마트 팜으로 풍요롭게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영양 부족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아 인구 증가의 대표적인 원인인 기후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농업에 있어 자연재해는 치명적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고 식량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스마트 팜(smart farm)이다. 스마트 팜 정책은 농업 인력 감소와 기후변화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정 과제이자 8대 선도 과제이다. 농산물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스마트 팜 도입은 시급하나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제는 새로운 농업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에서는 귀농 지원 정책,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철거 때 관리자의 해체계획서 작성과 주무 감독청의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 건물 철거 업체가 만들어 동구의 허가를 받은 해체계획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계획서에 쓰인 대로라도 했으면 또혹시 모를 일이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계획서와는 다르게 최상층부가 아닌 저층부터 철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험천만한 공정인데도 감리자 역시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다.

안전 소홀 원청기업 처벌 시급하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자연재해, 대형 재난 등 새로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 사회’라고 규정했다. 성찰과 반성 없이 성장만을 외치며 질주하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꼬집은 것이다. 광주는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66.8%)이 가장 높은 데도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도심 곳곳에서 고층 아파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46곳을 포함해 모두 80여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도심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 주변 시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느끼며 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익에 눈먼 건설업체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관리·감독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니, 비리와 부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단단계 하도급 등 불법을 뿌리 뽑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도 더욱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관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과 의무가 있는 원청 사업주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동안 발생한 술한 중대 재해가 ‘인재’로 드러나도 정작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었다. 자칫 우리 모두가 ‘위험 사회’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야말로 진상을 정확히 가려낸 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격정이 되어 이웃과 함께 깨내 먹었던다. 그러고 난 후 오후 늦게 담임이 나타난 것이다.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깊은 감동으로 밀려왔다. 자식을 위해 겸연쩍어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학생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을 위해 등이 굽도록 헌신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다. 출고 배고픈 시절에도 자식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한 것이라. 해방과 6·25의 격변기에도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자식 교육열만큼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희생적인 우리 부모들이 아닌가. 그날 오후 늦게 오지마을을 가정방문을 마치고 굵이굵이 산등성을 돌아 먼 소제지에 도착해 보니 읍내로 나가는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밤늦게 광주 집에 도착했었다. 그러나 담임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으로 가슴 벅찬 하루였다. 통닭 열 마리를 대접받은 것보다 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애 큰 보람이었다.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싶다. 알량한 상품권을 넣어주고 교사의 동정이나 살피는 도회지의 알팍한 학부모들에 비해 얼마나 순수하고 소박했던가. 갈수록 인정이 메말라가는 세대에서도 초임 교사 시절 그날의 가정방문을 생각하면 지금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 팜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장기간 획기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미래에는 공급 측면에서 기술 혁신의 목적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 팜 혁신 팸리는 상주, 김제, 고흥, 밀양 등 네 곳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의 농업 선진국에서는 국가별 농업 특성에 따라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형 영농에서부터 소규모 농업까지 스마트팜 및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팜을 도입함으로써 농가는 생산량 증가,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득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 청년층을 농업으로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 농업이 가야 할 길은 멀다. 불확실한 미래에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미래 농업의 중심에 스마트 팜이 서 있을 것이다.

社說

‘재개발 복마전’ 비리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 구성부터 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전문성이 미흡한 조합원들에게 맡겨진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지역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구는 재개발 33곳, 재건축 13곳 등 모두 46곳이다. 이 가운데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 등 네 곳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아홉 곳은 이미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다. 한데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된 조합은 철거·시행·시공 업체 선정 등 막대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조합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계림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A씨(56)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정비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만 원 받는 등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권을 둘러싼 조합원 간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일반 주거 지역보다 20~50% 더 높게 책정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구도심은 평균 26층이 넘는 고층 건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북마전과도 같은 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 전반을 광주도시공사나 LH 등 공공기관에 맡겨 원주민 정착 등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늘어나는 산업재해 뎀질 처방만으론 안 된다

광주시 학동 재개발 현장의 건물 붕괴 참사는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경찰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국회 조사 과정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법 하도급과 감독당국의 소홀한 현장 점검 그리고 안전보다 비용만을 따지는 업체의 태도 등이 어우러져 그 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먼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시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동구는 철거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난날 14일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우려 민원을 받고도 공문을 보낸 것 외에 현장 점검이나 대행 기관을 통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고 당일 하도급을 받아 철거를 맡았던 백솔건설의 문재점을 지적했다. 백솔건설은 고작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일이 생길 때

마다 일용직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설비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철거계획서도 안전보다 공사 비용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참사 관련 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지난 2016년부터 사업장 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했으며 올 3월까지 2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장 안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곤 한다. 이렇게 되면 ‘제 2의 학동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뎀질식 처방’으로는 산업재해를 결코 막을 수 없다.

無等鼓

전남 지역 관광지를 광역 순환버스로 둘러보는 ‘남도한바퀴’라는 상품이 첫선을 보인 것은 2014년 5월이었다. 전남도와 금호고속이 손을 잡고 내놓은 일종의 시티투어 상품인데 이후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됐다. 한 지역만 관광하는 시티투어만 있던 시절, 버스 한 대로 여러 시군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었다. 탁트인 시야를 제공하는 45인승 쾌적한 버스에 레크리에이션 강사 경력이 있는 승무원과 해박한 지식의 문화해설사가 탑승해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알기 쉽게 설명하는 신개념 관광은 곧 입소문을 뒀다. 1만 원 남짓한 버스 요금(식사비는 제외)으로 하루 종일 남도의 멋진 풍광을 즐기고 풍성한 음식을 맛보는 재미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다. 첫해엔 776회 운행에 1만1300여 명이 이용했는데 이듬해인 2015년부터는 운행 횟수를 1000회 안팎으로 크게 늘리자 이용객이 급증했다. 2018년에는 이용객이 3만8640명으로 증가했고 버스 한 대당 평균 탑승객도 35.9명으로 2014년 14.6명에 비해 2.5배나 늘었다.

제철별 테마별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KTX와 연계해 당일치기에 머물던 상품을 1박2일 코스로 확장한 것이 인기 비결이었다. 2019년에는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놓은 상품과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와 전사의 섬 신안 등 전남 바다를 감상하는 ‘새바여행’으로 히트를 쳤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행 횟수를 대폭 감축했지만 예술의 섬을 둘러보는 여수 장도 등의 코스는 탑승률이 95%에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인기를 누렸다.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4%였고 ‘재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사람도 98%에 달했다. 이용객들의 절반가량이 서울·경기권이고, 86%가 여성이었으며, 10~40대 비중이 85%인 것도 특징이다. 남도한바퀴가 7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 후, 우선 7개 코스에서 시범 운영한 뒤 7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가슴이 확 트인다. /정월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문화사업국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